

3월의 기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장 3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성회 안내 -

2013년 3월 6일 일본 센다이에서
“주께 돌아오는 성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순복음하남교회, 성산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문경섭 안희순 오현주 원소선 이춘자 이형춘 임철규 정경자 정낙숙 조종숙 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경남 한대성 한선희 함석숙 Beverly Carol Hughes Blesson Varghese Maxwell Arhin 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또한 전화번호 0102726**** 032465****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말의 힘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벤 카슨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살렸고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삼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 주변을 배회하며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고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 있느냐’며 저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진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룹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 마디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 갑니다. 운명을 팔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되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조용기목사 신년대담]

2013년 우리는 어떤 희망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마음의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전인구원 위해 힘써야 합니다”

1.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4차원 영성'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꿈을 강조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꿈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성령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단체 국가가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교회는 대부분 절망적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주의 종은 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는데 십자가 외에는 꿈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꿈을 심어줘야 하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준다(골 2:28)고 말씀합니다. 꿈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불광동에서 목회 때 강영우 박사는 시력을 잃고 누이와 동생과 함께 살았던 강영우 박사의 삶을 처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비록 보이는 것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다'며 그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에 꿈을 품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정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꿈을 심어주지 않고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마음의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꿈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요셉도 꿈에 이끌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간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에 사로잡혀서 생활할 때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 50년 동안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꿈이 나를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누구와 사귀는가에 따라 5년 후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꿈을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2. 사람들이 야망을 꿈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과 성경이 가르치는 꿈의 차이가 있습니까?

-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운 꿈을 꿈입니다. 세상 사람은 출세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크

리스천은 꿈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꿈은 '인간적인 4차원'이고, 우리의 꿈은 '영적인 4차원'으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꿈'을 이야기할 때 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대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꿈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는 동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2013년 새해를 맞아 모두들 개인적으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희망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딱 차 있는 꿈을 꿔왔습니다. 2층에 하나님의 빛이 비취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삼중축복의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불광동과 서대문에서 목회하면서 우리는 전인구원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삼박자 구원이라 말했는데, 이를 통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찬송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때 다시 '삼중축복'을 찬양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타 교단에서는 이를 기복 신앙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영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문제를 깨우치게 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전인구원을 위해 더욱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 짐을 야훼께 맡겨라

“네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6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 짊어지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1. 하나님께 짐을 못 맡기게 방해하는 마귀

마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가 자신의 짐을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심신의 고통, 저주와 죽음의 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다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빠져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우리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마귀가 훼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호히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먼지와 티끌 같습

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털고 다녀도 먼지와 티끌이 묻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하며 붙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고 믿음과 용기, 희망과 단장을 빼앗아 가고 건강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2.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저주를 없애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였으며, 또한 “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 감사하는 길입니다. 불평하며 울고불고해도 그것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어려움을 당할 때 일수록 더 감사하십시오. 어려울 때 감사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일에 감사를 많이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3. 눈을 열어 영적 실상을 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짐을 맡기는 자의 짐을 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고 승리해야 할 것은 바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타일러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미 우리의 짐을 모두 맡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일생을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도 짐도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떠한 짐도 걸머질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십자가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이미 걸머지셨으므로 우리는 쉽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도 좋다. 내게 짐을 맡기고 나의 멍에 밑에 들어와서 의지하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굳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 보십시오. 기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리고 한번 온전한 평안을 누리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겨 죽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에 감동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DCEM, 여의도순복음하남교회 금요철야예배로 헌신예배 개최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야 진정한 성공 이룰 수 있어



2월 1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하남교회(담임 임동환 목사)에서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선교사역을 돕기 위한 ‘DCEM 헌신예배’가 열렸다. 여의도순복음하남교회가 주관하여 금요

철야예배로 드려진 이번 헌신예배는 2013년 상반기 조용기 목사 해외성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구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예배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

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사도행전 8장 4절-8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시가끼 장로는 사업의 실패와 성공을 거듭 경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간증하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복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역설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끼 장로는 말씀을 끝맺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찬양하였고 전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여의도순복음하남교회는 하남시 일대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머니영어회화, 토요 영어동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산순복음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분명한 목적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길 피력

경기도 남양주구리에 위치한 성산순복음교회(담임 송영준 목사)는 지난 2월 15일 DCEM 헌신예배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시편 23편 1절-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네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시가끼 장로는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하며, 목적지를 정했더라도 지도를 갖고 있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제대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조용기 총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인생의 4가지 네비게이션에 대해 말하였다.

시가끼 장로는 첫째로 긍정적 생각의 네비게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했는데, 이렇게 긍정적 생각을 가졌기 때문



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넷째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져

야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네비게이션’을 갖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말씀을 마쳤다.

한편 여의도순복음남양주구리교회는 성산순복음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고 지역 복음화와 교회부흥성장의 꿈을 꾸고 있다.